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무용

한국 무용발전의 토양을 견실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32년 동안의 관변기구로서의 모습을 접고 민간자율을 화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무용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희망에 찬 기대와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관 주도의 지원정책에서 결핍된 여러 요소들을 살펴 창작의 주체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한국 무용발전의 토양을 견실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현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무용
-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03-현재)
- 김현자출신아카데미 대표 (88-현재)
- 현대무용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교수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관 주도 예술지원정책에서 민간자율로의 이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가시화되면서 향후 한국 문화예술 지원의 새로운 지평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30여 년 간 정부의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서울무용제를 비롯해 문예진흥원의 각종 지원제도에 힘입어 무용계는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었다. 70년대 이후 춤 아카데미즘과 더불어 무용의 예술적 성취를 일궈 내는데 문예진흥원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기존의 문예진흥원 역할의 핵심은 아무래도 현장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예술가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지원은 대개 소액다건의 분배식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제 민간자율기구로 탈바꿈하는 만큼 지원제도 역시 변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분야 지원의 화두는 우선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진다. 물론 기초예술 증진이라는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에 따르면 소액다건의 지원방식 또한 여전히 불가피한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지원방식은 선택집중에 무게중심을 두되, 소액다건의 지원방식 또한 부분적으로 고수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무용가·단체 또는 소위 독립안무가들을 관심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작가정신이 투철한 안무가에게 집중 투자해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을 생산해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액다건 지원의 경우, 세대·장르·지역 등을 골고루 안배하는 평등과 균등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물론 예술가에 대한 국가의 맹목적인 지원은 자칫 무용창작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몸을 도구로 하는 무용은 시공간의 예술로서 작품 자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소위 말해 일회성의 예술이라는 속성이 있다. 무용은 이러한 속성과 더불어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예술의 대중화, 상품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해 무용이 존립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용 대중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아울러 예술성과 더불어 상품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작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무용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무용

전용극장의 건립과 연습실 증설, 무용커뮤니티 등이 적극 개설되고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무용 활성화와 남북무용교류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중앙-지방의 상호소통을 통해 지방무용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예술위원회는 분권과 자치라는 기로 속에서 중앙 집중식 자금 분배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으로의 분산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문화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문화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무용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위원회 출범과 함께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그동안 남북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일회성의 선전 및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남북예술교류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용은 몸이 언어가 되는 예술이므로 그 어떤 장르보다 남북예술교류에 있어 선봉에 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족 정체성이 담지된 무용 언어의 미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남북 무용가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국제예술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제교류도 단순히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축제와 우리나라 단체들의 해외공연 등에 편향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공연 이외 교육과 연구, 인적교류 등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춤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적 문화교류를 통해 춤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견주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퇴보된 춤의 미학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의 한국춤 나름의 독창적인 미학을 발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외 춤교류는 일국적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다원적 마인드 속에서 국제 무용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대립과 갈등은 발전을 위해 불

가피하게 부딪치는 부분이다. 무용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무용쪽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이념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세대간, 장르간, 또는 교육과 현장, 창작과 비평의 대립이 첨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대립간을 무디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예술위원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시스템의 가동과 철저한 평가제도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제도라 할지라도 그 성공여부는 이를 운용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무용분야의 경우 제도적 보안을 강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문예진흥원이 32년 동안의 관변기구로서의 모습을 접고 민간자율을 화두로 예술위원회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무용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희망에 찬 기대와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평생을 교육과 현장 창작무용가로 활동해 온 본인으로서 무용계 현장의 소리를 성실히 귀담아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창작의 주체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고 제안하는 일종의 매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

한국의 무용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기구로서의 예술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용계에서 쏟아지는 두 가지 시선, 즉 '기대와 우려' 모두 필요한 덕목이다. 그동안 관 주도의 지원정책에서 결핍된 여러 요소들을 자율성·다양성·현장성을 바탕으로 무용창작 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 조사와 이론(비평), 매개의 부분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한국 무용발전의 토양을 건설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Arts
Together

Arts Council KOREA